

수도권 규제 풀기 시동 지방기업 다 빼앗길 판

기업들 광주·전남 투자 철회 움직임

정부가 수도권에서 공장 신·증설을 규제해온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를 본격화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의 기업 유치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시·도와 공장 이전·신설 등 투자협약을 맺은 수도권 기업들이 정부의 방침에 맞춰 투자를 백지화하거나 투자를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수년 동안 공을 들여온 광주시·전남도의 기업유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립 권한을 중앙부처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이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25일 시작하는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100만㎡ 이상 택지, 30만㎡ 이상 공업단지, 10만㎡ 이상 관광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

우 교통·환경영향 평가를 면제받고 하는 등 공장 신·증설을 대폭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은 공장 총량제,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등 수도권에 집중 부과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기로 하는 한편 반발하고 있는 비수도권에 대한 강력한 설득작업을 과기로 했다.

이처럼 여권이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지원하고 나섬에 따라 지역 투자유치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인 B사는 전남 H군에 100억여원을 투입해 5만 여평 규모의 공장을 짓기로 전남도와 투자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으나, 지난 2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 때문에 투자유치 계획을 백지화했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지난 2000년~2007년까지 투자협약을 맺은 수도권 21개 업체도 투자를 재검토할

▲수도권정비계획법=과밀 억제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1982년에 제정됐다.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 각각 개발 행위 제한 규정을 두는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공장 신·증설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광주시도 지난 2003년부터 올 현재까지 투자 협약을 맺은 수도권 37개 기업과 꾸준히 실무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지만, 투자유치를 포기하는 기업이 나오지 않을 까 우려하고 있다. 기업들이 광주·전남보다 수요·자원·물류 등 인프라가 월등히 뛰어난 수도권으로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못자리 설치 농민들 “반갑다 비야” 광주·전남지역에 8~12mm의 봄비가 내린 23일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들녘에서 농민들이 보은 못자리를 설치하기 위해 모판을 옮기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한우사육 농심 뿔났다

전국 1만여 명 오늘 과천청사서 쫓기대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에 대해 한우농가들이 대규모 쫓기대회를 열기로 하고, 야당은 국회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전남지역 한우농가를 비롯한 전국 1만여 한우농가는 24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앞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타결 무효화’ 쫓기대회를 갖는다.

또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

노동당 등 야권은 23일 원내대표 표임을 갖고 25일 임시국회에서 ‘쇠고기 협상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또 협상 무효화를 위해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지역의 1천300여 한우사육 농민들은 24일 32대의 관광버스를 타고 이날 열릴 전국 한우농가 쫓기대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전국에서 1만여 한우농가가 참여

하는 이날 행사에서 전국한우협회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검역중단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협상 타결 내용이 국민 건강권을 포기한 것이냐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책도 유명무실한 내용이라며 수입협상 무효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김남배 전남한우협회 회장은 “사료값이 최근 수개월 사이에 40% 이상 오른 상태에서 값싼 미국산 쇠고

기가 전면 수입되면 한우농가들은 문을 닫아야 한다”면서 “특히 50마리 미만의 기업화되지 않은 사육농가들은 수지를 맞추지 못해 축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우농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와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시행 등은 기존에 계획된 정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1등급 한우를 생산하는 농가에 마리당 10~20만원의 지원하는 품질고급화 장려금 제도도 예전에 시행했다 중단한 거세장려금과 동일한 것으로 정부 대책 자체가 대부분 언론홍보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건강을 무시하고 검역주권을 포기한 쇠고기의 수입 확대를 철회하고, 국내 축산농가 피해 및 축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분석해 재협상할 것”을 촉구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혁신도시 추진 국회의원 모임’ 결성

전국 당선자 13명 공동 대응 나서기로

공기청정민영화 등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재검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13명이 ‘혁신도시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 공동 대응에 나섰다.

최인기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전국 혁신도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23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모임을 결성하고 혁신도시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혁신도시 조성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정부 측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혁신도시 기반시설 조성 예산을 예정대로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키로 하는 한편 공공기관 민영화도 ‘선 이전, 후 민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들은 다음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중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국회로 불러 혁신도시 추진 현황 및 정부의 입장을 듣는 한편 혁신도시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이 모임의 공동 대표로는 최인기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이 선출됐다.

한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이전하게 될 17개 이전 기관 관계자들은 제10차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24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나주 중흥리조트에서 갖는다. 회의에서는 혁신도시 건설 의지를 확고히 다지는 한편 이전 지원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등 현안 문제에 대해 집중 토론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우주인 이소연씨 5월3일 고향 광주에

교사·학생 대상 강연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여·29·사진)씨가 오는 5월3일 고향 광주를 방문한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씨는 오는 28일 귀국해 기자회견과 청와대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다음달 3일 고향인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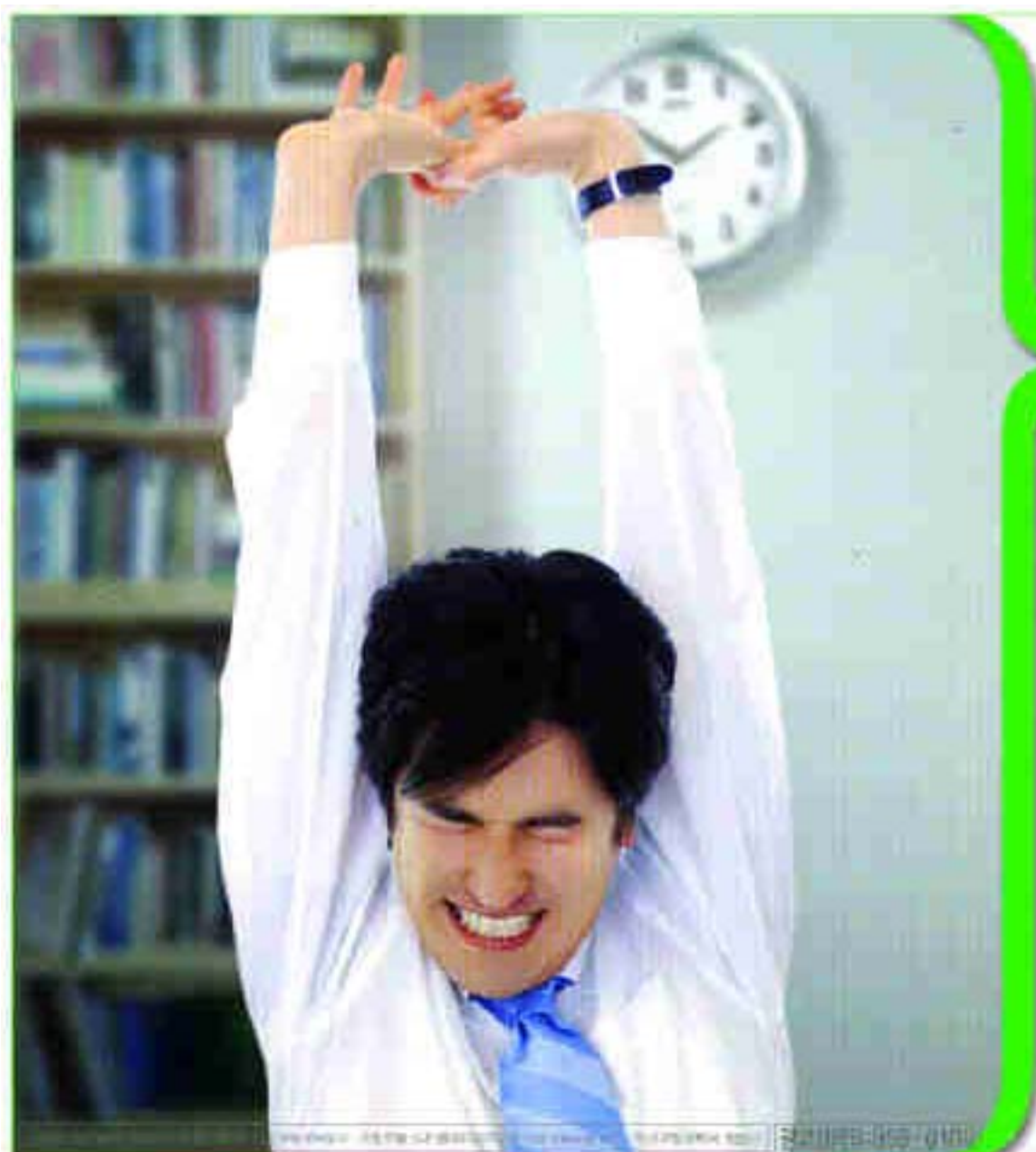
였다. 시교육청은 이씨가 광주에 도착하

는 다음달 3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이씨의 귀향을 환영하는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씨는 광주 시내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갖는다.

광주시는 이씨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방안과 카피레이드 등 다양한 환영 행사를 추진 중이다. 환영행사를 마친 뒤 이씨는 모교인 광주과학기술원 이통대학은사와 후배들을 만나 강연을 갖고 후배들과 대화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온몸이 나른하고, 의욕은 떨어지고...” 비타민 부족이 춘곤증을 부릅니다!

쉬어도 피로가 증처럼 풀리지 않는 봄... 봄에는 활동량이 늘어나 비타민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새봄, 몸도 마음도 산뜻하게 맞이하고 싶다면 아로나민 씨플러스! 비타민 B군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가 보강되어 피로를 풀어주고, 활기찬 건강과 깨끗한 피부를 지켜줍니다.



활산화제 보강·종합비타민 아로나민 씨플러스
*활산화제 보강·비타민·E·셀레늄·아연 등 활성산소 제거
*피로, 눈의 피로, 기미, 주근깨

활성비타민 피로회복제 아로나민 골드
*흡수가 잘 되는 활성비타민 B1, B2, B6, B12, E
*피로, 스트레스,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자외선피해

비타민 C 1200mg
1일 2회이면 하루 섭취량으로 충분합니다

제품문의 080-022-1010(수신자부담) www.aronamin.com

건강 100세를 실현하는 ILDONG 일동제약